

기아·삼성 신형SUV 고공행진

성능 甲 쏘렌토... 가격 매력 XM3

기아차 국내 첫 하이브리드 SUV
르노삼성 소형보다 가격 더 저렴

국내자동차시장에서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사전계약에 돌입한 신형 쏘렌토와 XM3의 인기가 예상롭지 않다. 기아차는 국산 최초의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를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했고 르노삼성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마음 잡기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4세대 쏘렌토는 지난 20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8000여대가 예약되며 더 뉴 그랜저(1만7294대)의 인기를 넘어섰다. 특히 사전계약의 약 70%는 국산 첫 중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됐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SUV 모델은 도요타 '라브4'와 렉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서스 'RX 하이브리드' 모델 등 일본 브랜드가 유일했다. 그만큼 국산 모델을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대거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하루만에 사전계약을 중단했지만 소비자의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르노삼성자동차는 오

랜만에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르노삼성이 3월 출시를 앞둔 쿠페형 SUV 'XM3'가 사전계약 3일 만에 2500대를 넘어서며 흥행몰이에 나선 것. 지난 21일부터 전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전계약에 들어간 XM3는 계약 첫날 1000대를 넘어섰으며 주말을 포함해 3일 동안 2500대를 넘어서는 사전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특히 XM3의 인기는 가격적인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 XM3 가격은 1795만~2695만원으로 주요 소형 SUV보다 200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다.

파워트레인에는 TCe260(1.3가솔린 터보)과 1.6GTe(1.6 가솔린) 엔진 2종으로 출시된다.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 'TCe260'에는 게트락 7단 습식 EDC 변속기(DCT)가, 1.6GTe 엔진에는 엑스트로니 무단변속기(CVT)가 각각 조합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삼성 XM3.

11년만에 현장... 쌍용차 해고자 46명, 5월 복귀

2009년 대규모 해고 사태

4차례 상생발전위 거쳐 합의
2달간 업무교육, 7월 현장 배치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해고 사태로 회사를 떠난 노동자 중 마지막 남은 46명이 오는 5월 1일 11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전원 복직 후 회사의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유급 휴직 중인 해고 복직자 46명을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복지 중단 및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 후 12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쇄신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복직된 해고자들 역시 이에 맞춰 유급 휴직(통상 임금의 70% 지급)으로 전환된 상태였다.

이러한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노·노·사·정 4자 대표(쌍용차, 쌍용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해고 복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첫 상생

발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차례의 추가 논의를 통해 방안을 협의해 왔다.

4차례의 상생발전위원회를 거쳐 노사가 최종 합의 함에 따라 유급 휴직자 46명은 오는 5월 1일부로 부서 배치되고 2달간의 OJT(직무교육) 및 업무 교육을 거쳐 7월 1일 현장에 배치된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퓨리케어, 극초미세먼지 '99.999%' 제거

KCL 규격에 따라 먼지 제거율 측정

LG전자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가 극초미세먼지 제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최근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퓨리케어의 미세먼지 제거 능력 시험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CL은 한국 공기청정협회 규격에 따라 30㎡ 실험실에서 0.01마이크로 크기의 먼지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11분만에 99.999% 제거됐음을 확인했다.

LG전자는 이번 시험이 필터 자체에 대한 일반적 시험이 아닌,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입증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LG전자는 퓨리케어360° 공기청정기 성능을 다양한 연구와 임상실험으로 입증한 바 있다.

호흡기 염증지표와 혈액내 염증지표를 내려 혈관과 심장질환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개선 및 투약 횟수 감소 결과도 확인했다.

/김재용 기자 juk@



카카오 여민수·조수용(왼쪽부터) 공동대표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및 검색 서비스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재선임
다음 합병후 첫 임기연장 CEO

연임 가장 큰 이유 재임기간 실적개선
카카오특수 이익창출 구조 자리 잡아

카카오의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가 뛰어난 경영 실적에 힘입어 포털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24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2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2018년 3월 취임한 두 공동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임은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확정된다.

카카오의 대표이사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이후 처음이다. 합병으로 출범한 다음카카오의 첫 수장인 이석우·최세훈 공동대표와 그 뒤를 이은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모두 단임으로 물러났다.

두 공동대표 연임의 가장 큰 이유는 재임기간 회사 경영 실적 개선이 꼽힌다. 2017년에 연 2조원에 못 미치던 카카오의 매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2000억

원을 돌파하며 2년 전보다 25%가량 증가했다.

주력 상품인 카카오톡에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고, 콘텐츠·모빌리티 등 새로 벌이는 사업에서도 수익 모델이 생겨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졌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카톡 대화 목록 내 광고인 '톡보드'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하루 평균 5억원이 넘는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해 6498억원을 기록했던 카톡 관련 사업 매출은 올해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여민수 공동대표는 2016년 8월 광고 사업 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플랫폼 등을 주도했다. 조수용 공동대표는 2016년 12월 브랜드 디자인 총괄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입사해 카카오뱅크·카카오T·카카오미니 등 브랜드를 선보였다. 두 공동대표에 다시 한번 신임을 보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도 이번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코로나 확산에 '릭스틸 바이오' 수출 급증

(향균 컬러강판)

동국제강 세균 민감한 공간서 사용
특수 첨가제 이용 살균·향균 극대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코로나19)가 확산되며 전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운데, 동국제강이 2018년 선제적으로 개발 완료 후 판매를 확대 중인 향균 컬러강판 '릭스틸 바이오'가 주목 받고 있다.

릭스틸 바이오는 특수 금속 세라믹 향균제 및 특수 첨가제를 이용하여 살균효과 및 향균효과를 극대화한 컬러강판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서식을 억제한다. 생활환경균인 0-157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등에 대한 향균성뿐만 아니라, 항곰팡이, 청정기능(탈취)까지 갖춘 프리미엄 향균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하며 반영구적인 살균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릭스틸 바이오'는 세계 1위 향균 솔루션 업체인 마이크로밴(Microban)에서 인증 받은 '바이오 마이크로밴'과 국내 향균 인증기관 FITI에서 인증 받은 '바이오 프리미엄' 등 2개의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제강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향균 솔루션 업체인 마이크로밴과



동국제강 리크스틸 바이오 강판.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국제강의 컬러강판에만 마이크로밴 향균 첨가물 사용이 가능하다.

릭스틸 바이오는 수술실, 제약회사, 의료용 냉장고, 요양병원, 식품공장, 반도체 공장, 쇼케이스, 업소용 냉장고, 식품운반 차량 등 생활과 밀접하거나 세균에 민감한 공간의 내외장재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태국, 중남미, 호주 등 열대 기후이거나, 습기에 취약한 지역의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의 공업 표준 규격인 JIS를 통과하여 위생관념이 철저한 일본에도 수출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